



한중만교수

# 선불교 정토·밀교사상 융합

## 한국불교학회 15일 추계학술대회

한국의 조동선사에서 설장(雪岑) 김시습의 <조동오위요해>가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또 <선원청규>와 <척수백장청규>에서 엿볼 수 있는 사상은 무엇인가.

오는 15일 동국대 개교 90주년 기념 문화관 예술극장에서 열리는 한

설(正偏五位設)의 기초에 서서 도용(道隆)과 자순(子淳)의 오위(五位)를 바탕으로 정편오위설과 격외선의 도리를 자유자재하게 융합시켜 정편오위설이 조동선의 원리에만 머물지 않고 임제선과 융합하며, 또한 조동선이 유학의 '태극도

수 있다'는 임제선의 격외선(格外禪)의 도리로 보았으며, 또 음양의 이치를 논한 '참동계'나 천지간의 이치를 밝히고 있는 '태극도설'의 원리는 상합상인(相合相因)에서 변화를 이루는 것이 조동선의 원리와 같은 것임을 밝히고 있다.

효탄스님(동국대 강사, 역사교육)의 '선원청규(禪院淸規)와 척수백

하고 있다.

'선원청규'에 엄벌의 규정이 명문화돼 있다는 점과, 장례의례가 실려있는 '망승' 조가 '염승'의식으로 이뤄져 있는 등 정토수용의 사상을 추측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척수백장청규' 내에서 정(定)을 닦는데 힘을 돕는 주문인 '능엄주'가 망승의 행자에 자주 인용되고 있었던 것은 밀교사상의 수용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견해다.

최성렬교수(조선대 철학)의 논문 '화엄론절요(華嚴論節要)중 요간필요(要簡節要)의 체계에 대한 연구'는 전3권으로 구성된 지눌의 <화엄론절요>중 권1에서 권2중반까지인 '요간필요'를 화엄경의 교리적 특징 등 모두 심문(十門)으로 구분해 그 내용을 살피고 전체적인 체계를 처음으로 소개했다는 점에서 관심을 끈다.

한명우 기자



효탄스님

## 선원·백장청규에 염불·주문등 명문화

### "조동선 원리, 임제선·유학·도교와도 회통"

국불교학회(회장 김영태) 주최 '제26회 추계 전국 불교학술연구 발표대회'에서는 모두 8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한중만교수(원광대 원불교학)의 논문 '설장 김시습의 조동오위요해(曹洞五位要解) 연구'는 동산(洞山)과 조산(曹山)의 정편오위

설 및 도교의 '참동계(參同契)'와 화동원을 바탕으로 한국 조동선대에서의 새로운 조동선의 원리를 탐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한교수는 "설장은 오위설 전체를 상측의 원리와 '언어적 견해가 깊어져야 참경지를 체득할

장정규(勅修百丈淸規)의 망승(亡僧)에 관한 고찰'은 '선원청규' 권6의 '망승 조(條)와 '척수백장청규'의 '능엄회'의 분석을 통해 송대 선종에서의 정토수용과 밀교수용을 바탕으로 하여 선종이 종합불교적인 성격을 띠며 발전해 나갔음을 설명



최성렬교수

## "유적발굴 '돌팔이'에 말긴꼴"

### 이선복교수, 고고학 대회사 '발굴실명제' 제안

'고도의 전문적 수련을 거친 전문가가 아닌 돌팔이 무자격 의사가 외과수술을 한다면 어떻게 되는가.'

국민의 보건을 염려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유적발굴을 빚대 이선복교수(서울대)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경주에서 열린 '제20회 한국고고학 전국대회'에서 관계당국과 고고학계의 자성을 촉구하며 단진 자조적인 우려의 소리다.

이교수는 매장문화재 관리제도의 미비점은 전문인력과 투자부족이 함께 상충작용을 하며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고학 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이들이 50%도 되지 않는

문제점과 각종 형태의 매장문화재 관리와 조사에 필요한 비용의 공정한 부담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을 시급한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에 대해 이교수는 모든 형태의 발굴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문화재학술조사예규(가칭)를 만드는 등의 문화재보호법 보완과 발굴실명제 및 표준품셈 도입을 제안했다.

이밖에도 65년부터 91년까지 개발된 4억3천4백여평명 토지에 서 구조조사(개발로 훼손될 유적지를 발굴조사 하는 것)는 3백19만여 개에 불과해, 급속한 개발로 많은 유적이 파괴되고 있다는 통계자료도 제시했다. (우)

'석굴암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미가 응축된 최고의 걸작이다.' 15년간의 긴 연구 끝에 내린 결론은 아주 간단했다.

강우방실장(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은 최근 발간된 <미술자료 제57호(국립중앙박물관 권·시진)

볼두해 온 석굴암 연구를 완성했다.

석굴암의 기하학적 원리를 찾아내는데서 출발한 강실장의 연구는 제1부 '석굴암에 응용된 조화(調和)문'에서 비례의 원리와 연기사상이 일치한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석굴암의 건축원리를 찾아냈다.



강우방실장

## "석굴암 본존불 조형원리 신라불국토사상 함축 표현"

### 강우방씨 15년연구 '석굴암도상해석'서 주장

에서 '석굴암 불교조각의 도상(圖像)해석'(제4부)을 통해 본존상은 깨달음의 순간을 형상화하는 차원을 뛰어넘어 '인도가 서쪽이리니 신라는 동쪽'이라는 발상에 바탕을 둔 신라불국토사상을 완벽하게 조형화했다는 본존의 불교이론적 의미를 밝혀냄으로써 지난 87년부터

제2부 '인도의 비례이론과 석굴암 비례체계'의 적용'에서는 인도의 비례이론을 응용한 석굴암은 당시 세계수준에 걸맞은 과학과 미술 이론이 녹아 들어있음을 입증함으로써 석굴암 본존에 대한 수리적·건축이론적 조명을 이뤄냈다.

제3부 '석굴암 불교조각의 도상

적 고찰'은 본존을 비롯해 석굴암 안에 조각돼 있는 보살상, 삼대제자상, 삼일면관음보살상 등을 불교이론을 토대로 해석해 냄으로써 석굴암이 담고 있는 불교사상연구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무엇보다도 석굴암이 담고 있는 불교사상의 내용을 개낸 것이 가장 큰 보람입니다. 그러면서 얻은 결론은 석굴암은 세속스피어나 과대는 물론 막고공을 비롯한 중국의 어떤 석굴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문화의 정수라는 것입니다." 15년 고행끝의 해탈과도 같았다. (우)

## '발해 다라니경' 日서 발견...9세기 교류史料

### 송기호교수 교토 石山寺 소장품사진 국내 입수

발해가 당나라는 물론 일본과도 폭넓은 교류를 가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경전사료가 처음으로 공개돼 학계의 관심을 끌고 있다.

<불정존승다라니기(佛頂尊勝陀羅尼經)>라고 이름 붙여진 이 다라니경은 발해 사신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직접 전한 불경으로, 발해를 통해 문물이 일본으로 전달됐음을 확인해 주는 귀중한 실증자료로

평가되고 있다.

송기호교수(서울대 국사학)는 지난 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불정존승다라니기(佛頂尊勝陀羅尼經)>의 사진을 일본 나라국립문화재연구소의 도움으로 입수해 이를 공개했다.

이 다라니경은 일본 교토 근교 오쓰(大津)에 위치한 이시야마지(石山寺)가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이 불경 마지막 두쪽의 발문(跋文)에는 '정관삼년...발해국사...이거정 지라지(貞觀三年...渤海國使...李匡正 持來之)', 즉 '일본 정관 3년(861년) 발해 사신 이거정이 가지고 일본으로 왔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발해 사신으로 일본을 방문한 이거정의 이름 앞에 '영갈대부 정당성춘부 정삼위 상종랑장 균국 왕현 개국(英秩大夫 政堂省春部 正三位 上中郎將 均谷任縣 開國)



불정존승다라니기 불경 말미의 발문 가운데 일부

이라는 판직명이 적혀 있어 지금까지 미흡했던 발해의 판직체계를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발해에서 건너가 현재까지 일본에 남아있는 유물로는 이번이

공개된 <불정존승다라니기>와 같은 절이 소장하고 있는 <대승본생심지관경(大昇本生心地觀經)>, 일본 황실도서관이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발해 관청에서 일본 관청으로 보낸 공문서 등 3점 뿐이며, 국내에는 발해와 일본의 교류에 대한 사료는 남아있지 않다.

한편 <속일본기(續日本記)>와 일본 역사책, 나무판 위에 글자를 새긴 목간(木簡) 등에는 발해와 일본 사이에 35차례에 걸친 사신 왕래가 있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CyberSangha THE BUDHIST ALTERNATIVE JOURNAL

About CyberSangha Subscriptions/Back Issues Advertising/Writers Library

About CyberSangha Explain the Mission of CyberSangha, the Issue, and publication information

The Current Issue See a glimpse of the cover, examine the table of contents and view special features.

##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 사이버상가

미국불교는 다민족 사회라는 말에 걸맞게 다양한 종류의 불교가 뒤섞여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는 티베트·일본·중국·한국불교 등이 있으며, 이들의 활동 역시 각각의 독자성을 지니고 있다.

'사이버상가'는 미국불교의 특성을 그대로 반영한 사이트로 미국 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불교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려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사이버(Net)란 '가상(假象)을 뜻하며 빠알리어인 상가(Sangha)는 '모임·공동체·승가(僧伽)'를 의미하고 있다.

그레이 레이(사이버상가 편집장)씨가 "지금껏 큰 스승을 모시지 못한 미국불교의 취약성을 반추하고, 현재 미국 불교계에 포진해 있는 각국의 불교를 이해하고 적극 수용해 미국불교의 내적 유대감을 돈독히 하기 위해 사이버상가는 노력할 것"이라고

밝힌 것처럼 이 사이트에는 △전자잡지 △추천불교도서 △미국불교계 소식 등의 다양한 교육정보 등이 제공되고 있다. 이중에서 '전자잡지'와 '추천불교도서' 등이 사이버상가의 백미.

전자잡지는 현재 '96년 여름호까지 공개되어 있다. 이 여름호에는 '불과 물'(Fire and Water), '꿈에서 깨어나라'(Waking Up From the American Dream) 등의 미국의 불교적 자성을 요구하는 글 등이 실려있다.

또 추천불교도서는 '사이버상가' 편집위원 명이 추천한 불교도서 총24권이 평론·저자소개·가격 등의 정보와 더불어 소개되어 있다. 이들 추천도서 중에는 한국불교에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스님(베트남)과 호드론 스님(미국)의 신간도 있다.

사이트 주소는 'http://www.wenet.net/~csangha/' <우>

## "원효스님 경산 유곡서 탄생"

### 저술활동 중심무대는 분황사 추정

원효학연구원 학술대회서 밝혀

13일 동국대 경주캠퍼스에서 원효학연구원(원장 김영태) 주최로 열린 '원효학 연구 제1회 학술발표회'에서는 원효의 탄생지와 저술도량에 대한 집중조명이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이날 학술발표회에서는 원효의 탄생지는 현 경북 경산시 유곡동 유곡마을의 도돌양지 지역이며, 저술도량은 분황사임이 틀림 없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물론 이 유사한 주장은 한토사학자들과 학계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돼 왔으나 이들 문제에 대한 확고한 견해와 함께 공식적인 학술로 대두시켰다는 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이봉춘교수(동국대 경주캠퍼스 불교학)는 '원효의 탄생지에 관한 고찰'에서 <삼국유사> 권4 '원효불기(元曉不羈)에 원효가 태어났다고 기록돼 있는 압랑군(押梁郡·지금의 장산군)불지촌(佛地村)은 지금의 경산시 유곡마을에 속하며, 또 <경주지(慶州誌)>의 원효의 아들 설총이 '유곡에서 태어나고 여천에서 성장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설총이 출생한 유곡동에 원효의 본가가 있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영태교수(동국대 불교학)는 '분황사와 원효성사와의 관계'에서 △(삼국유사)에 원효가 분황사에 머물면서 화엄경소를 찬술하다 절필했다는 기록(절필을 그동안 많은 저술이 있었다는 의미로 해석함)과 △설총이 아버지의 진용(眞容)을 입적한 칠사(穴寺)에 모시지 않고 분황사에 모셨다는 점 등을 볼 때 분황사가 원효의 저술도량임이 확실하다고 주장했다.

◇기사발처 '한국 사찰의 주련'입니다.

## 송광사 "송광암 겨울 수련회 안내"

거금도, 진리의 섬에 있는 송광암은 고려시대 보조국사께서 창건하신 천년 고찰입니다. 스님의 정혜쌍수의 결사 정신을 바탕으로 하여 겨울 수련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 수련회 일정 "3박 4일"(금~일)

차수	기간	연령	대상	모집인원
1	96년 12월 6일 ~ 12월 9일	20~60대	일반인	30명
2	96년 12월 13일 ~ 12월 16일	"	"	"
3	96년 12월 20일 ~ 12월 23일	"	"	"
4	96년 12월 27일 ~ 12월 30일	"	"	"
5	97년 1월 3일 ~ 1월 6일	"	"	"
6	97년 1월 10일 ~ 1월 13일	"	"	"
7	97년 1월 17일 ~ 1월 20일	"	"	"
8	97년 1월 24일 ~ 1월 27일	"	"	"
9	97년 1월 30일 ~ 2월 1일	"	"	"

※ 각자 신청서를 만들어 이름, 주소, 직업, 전화번호, 종교, 수련법회 유·무, 원하는 차수 참가소견을 적어 FAX나 우편으로 보내주시기 바람.

— 아 래 —

- 수련내용: 참선·선체조·수심결강의, 산행
- 수련지도: 일선스님
- 회 비: 5만원
- 교통편 및 위치: 서울·광주·녹동, 서울·여수·녹동, 부산·녹동

금진 (배로 20분거리)

● 장 소: 전남 고흥군 금산면 어전리 74 송광암

● 연락처: 0666)843-8488 FAX)842-7307

## 분별은 바치고 마음은 밝은 곳으로

김재용 법사와 함께하는 금강경독송회! 이들의 현대적 수행담

금강경독송회 엮음

### 1부

금강경독송회 평신도님들의 신앙체험담 생활속에서 바치는 법을 실행하며 밝은 생활을 누리시는 마스한 이야기기 봄햇살처럼 가득합니다.

### 2부

오직 수행에만 전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 지극한 부처님 시봉과 불같은 정진에 몰두하고 있는 수자님들의 이야기는 푸른 공기처럼 우리의 가슴을 적셔 줍니다.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은 지혜를 가로막는 일이니 김재용 법사의 새번제 책

그 마음을 바쳐라

그 마음을 바쳐라 버리라고 하면 아까울 것이니 그 마음을 바쳐라 바치는 마음을 연습해서 남을 위해 살고 부처님 시봉하는 삶을 산다면 그 마음이 우주에 가득차서 결국 부처님이 되지 않겠는가 거기 어디에 내가 있고 또 내가 있는가? 너, 나 없는 그냥 한마음을 아닌가.

신국판 267쪽/값 7,500원

—백 선생님 법문에—